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부근영	학번	■■■■■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바콜로드
파견대학	웨스트네그로스대학(WNU)	기간	2014. 12. 21(일) ~ 2015. 2. 14(토)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은 생각보다 컸는데, 곳곳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다. 학생들은 보통 호의적으로 대해주기 때문에 인터뷰도 쉽게 응해주었으며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그런 분위기 덕분에 지금까지 연락하는 필리핀 친구를 사귄 수 있었다.
수업	<p>wmu에서 아침 9시부터 2시간 개인수업과 1시간 그룹수업이 있는데 발음, 글쓰기, 문법수업을 진행하였다. 발음 같은 경우는 주로 그날 배웠던 발음이 많이 들어가는 문장들이나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연습하는 과제를 많이 내주었다. 글쓰기는 논쟁거리에 대해서 쓰거나 일기를 적어오는 과제를 했다. 문법 같은 경우는 그날 배웠던 문법에 대한 문제를 풀어오는 과제를 냈었다.</p> <p>기숙사에서 하는 수업은 오후 3시부터 회화, 그룹수업, 숙어를 배웠다. 회화 같은 경우는 책이 좀 어려웠지만 바꾸기 싫었기 때문에, 예습을 오늘 배울 분량을 미리 하고 온 다음 깊이 있게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룹 수업은 회화를 그룹으로 하는 거였는데 주로 토론위주의 수업이었고 과제는 없었지만, wmu 학생들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과제가 한번 있었다. 숙어는 과제는 없었지만 10과를 나갈 때 마다 한번씩 시험을 봤다.</p>
Activity	보라카이 가는 초기 비용이 4800페소고 3박 4일 일정이었다. 해양스포츠 비용으로 제트스키 1000페소(2인) 스쿠버다이빙 2000페소 세일링(6인 30분) 250페소가 들었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바콜로드는 날씨가 흐린 날이 손에 꼽힐 정도로 대부분 화창했다. 비가 오더라도 소나기처럼 약하게 내리는 비였고, 마닐라에서 태풍이 몰아치던 당시에도 오히려 더웠다. 기온을 많이 체크하지는 않았지만 최고기온이 26도 였던 것 같다.
안전	자신이 조심한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학교 학생들은 1페소조차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늘 가방 조심을 하고 다녔다. 가방 조심해. '가방 꼭 잡아'를 외치고 다녀서 그랬던지 오히려 너무 위험하지 않아서 이상했다. 이제까지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사고가 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술 먹고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런 것들에 주의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숙소	학교기숙사( 0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숙소 시설은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폭신한 침대와 kbs가 나오는 tv, 에어컨 등 점점 좋아졌던 것 같다. 와이파이도 사람들이 없을 때는 잘 터졌지만 사람들이 많을 때는 카톡도 잘 안 통할 정도로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카페테리아에서 하곤 했다.
식사	학교식당( o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o ) 기타( ) 주로 학교 식당을 평일에는 이용하고 외부식당은 주말에 많이 갔는데 가끔 학교 식당이 별로면 근처 식당에 많이 갔다. 음식은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식으로 많이 해주는 편이고 외부 식당은 짜거나 단 편이다.
교통	okay아카데미에서 8시 30분에 차가 출발하기 때문에 wmu 갈때는 무료로 갔고 그 이외에는 지프니 (6페소) 택시(많이나오면 120페소)를 많이 탔다. 가끔 가까운 거리는 트레이시클을 이용하였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1,281,280	출국 전 사전 납부
보라카이	120000	가는 기본 금액
용돈	800000	

합계		

## 5. 출국 전 준비사항

폐소로 바꿔주는 곳이 서울역에 있지만 최대한 폐소는 적게 가져가는 것이 이득인 것 같다. 500페소를 들고 갔었는데 공항에서 사먹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적게 들고 가져가도 되지만 음료나 간식을 먹고 싶으면 500페소면 충분할 것 같다.(공항은 물가가 좀 쎈 편이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파는 밀크티가 100ml에 45페소라면 공항에서 공차처럼 팔았던 가게가 150?350?쯤 했던 것 같다. ) 바로 다음날 sm몰에 가기 때문에 페소를 많이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 폐소보다는 달러를 많이 가져갈수록 이득인데 sm같은 곳에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산을 해봤을 때, 달러를 폐소로 바꿀 때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날 환율만 높다면 달러가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두꺼운 옷은 필요 없지만 남방이나 걸칠 수 있는 꼭 들고 와야 한다. 에어컨이 은근 춥기도 하고.. 밤에 기온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필수템이다. 또한 무릎이상인 반바지나 긴바지를 무조건 들고 와야 하는데, wmu같은 경우 아예 긴바지나 무릎이상의 반바지가 아닐 경우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이다.

콘센트를 들고 오면 충전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콘센트가 tv뒤쪽에 하나가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룸메들 중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좀 난감할 수 있다.

기숙사에는 고양이가 정말 많은데 사람이 바로 옆에 지나가도 가만히 있을 만큼 온순하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챙겨주고 싶은데 고양이사료를 사서 주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고양이 용품을 조금 가져와도 좋을 것이다.

작은 크로스백을 가지고 오면 좋은데, 나는 미리 디랩에서 산 조그만 가방을 들고 갔었다. 안에 휴대폰, 동전지갑이 들어가는 크기였는데 위에 남방을 입으면 아무도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였다. 간단하게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절대 소매치기 당할 일이 없어서 부러워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나는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싫어했다. 어학연수 면접에서도 미리 생각해둔 답변을 계속 되풀이해서 2차에서 겨우 붙었고, 학교에서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 거의 일 년간 계절학기로 고생할 정도였다. 그래도 막연히 나는 그래도 외국인이랑 바디랭귀지로 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다. 갔다 온 결과는 솔직히 정말 값진 경험 들이었다. 이번 어학연수의 목표를 영어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모토를 잡았는데 영어에 대한 흥미는 정말 많이 생겼으며 모든 일에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

귀국한 뒤에 노래방에서 팝송을 부른 적이 있는데, 전에는 생각도 하지 않던 발음이 무의식적으로 신경 쓰는 내가 신기하기만 했다. 하지만 만약에 목표가 '토익, 토플 성적을 올리고 싶다.'라면 차라리 한국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여기서도 그런 수업들이 많지만 한국에서 배우는 주입식 교육과는 차이가 있고 암기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에 단기간 학습보다는 장기간 학습이 어울

린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일까? 한 달보다는 확실히 두 달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대학원시험 때문에 토플을 준비해야 하는데, 첫 스타트를 잘 끊었다는 생각이 든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기숙사 사진</p>	<p>기숙사 사진</p>
	
<p>기숙사 고양이 사진</p>	<p>기숙사 저녁 노을</p>
	

크리스마스 풍경		팔라팔라에서 먹은 새우